

일본인과 한국인의 커뮤니케이션 차이

-인사표현, 「どうも」, 「どうぞ」와 그에 대한 한국어표현에서
나타나는 콘텍스트 의존도의 차이-

강영부*

(e-mail : kjyart1@hotmail.com)

目 次

1. 들어가며
 2. 담화의 4가지 요소와 그 관계
 3. 코드 의존의 문화와 콘텍스트 의존의 문화
 4. 콘텍스트 의존도의 차이에서 본 일본어와 한국어
 5. 맺음말
-
-

1. 들어가며

한국어와 일본어는 문장구조 등 여러 면에서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다음의 (1)~(4)에서 보는 것처럼 의미적으로 대응관계를 이루는 단어끼리도 그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운용)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¹⁾

- (1)昨日はどうも.
- (2)昨日は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 (3)*어제는 정말(대단히).
- (4)어제는 정말(대단히) 감사했습니다.

*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부교수

- 1) *표는 그 표현이 해당 언어에 있어서 허용될 수 없다(unacceptable)는 것을, ?표는 해당 언어에 있어서 직감적으로 어색하다(unnatural)는 것을 나타냄. 이하에서도 같은 의미로 씀.

www.kci.go.kr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차이에 대해서 일한사전의 「ども」의 항목에서는 어떻게 기술하고 있을까? 우선 『시사엘리트사전』(시사영어사, 1995)에서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마음을 나타낸다. 아래의 서술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정말, 매우, 참으로」라고 풀이하고 있다. 한편, 『Prime 日韓辞典 第3版』(두산동아, 2004)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의미 분류를 하고 있으며 「①아무리 해도②어쩐지, 어딘지③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래도④정말, 참으로, 대단히(감사, 사과 등을 표시하는 인사말 앞에서)」와 같은 다양한 의미를 들고 있다. 이 중 특히 ④의 「ども」의 경우 그에 따르는 인사말 「お世話になりました」「すみません」「ありがとう」「失礼しました」가 생략되기도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두 사전에서 모두 「ども」 다음에 오는 서술-즉, 여기서는 인사말-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만 언급하고 있을 뿐, 왜 그 부분이 생략될 수 있는지 생략된 경우의 「ども」는 한국어와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한편, 「ども」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이유를 일본의 독특한 문화에서 찾으려는 시도도 있다. 그 대표적인 연구로서는 李(1984)와 Hasegawa(1994)를 들 수 있다.

우선, 李(1984)는 「ども」가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일본의 「축소지향(縮み志向)」의 문화와 관련되어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pp.74-76). 즉, (2)의 「ども」이하의 본래의 의미를 잘라 버리고 (1)과 같이 「ども」만으로 축소시켜서 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도 「왜 그래?」라고 물었을 때 장면에 따라서 「그냥 웃겨서(그래)/그냥 슬퍼서(그래)/그냥 답답해서(그래)/그냥 어지러워서(그래)...」와 같은 구체적인 서술부분(밑줄 친 부분)을 생략하고 「그냥」이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축소지향」이 일본문화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한국어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현도 한국의 축소지향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다음으로, Hasegawa(1994)의 경우는 일본에는 「다언설득(多言説得)」의 문화에 사는 미국과는 달리 「以心伝心」이라는 말이 있어서 일본인들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기분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²⁾. 이것을 위의 (1)(2)에 적용시킨다면 「ども」 뒤에 오는 구체적인 말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를 굳이 코드화시키지 않더라도 일본인들은 「ども」만으로도 전달하고 싶어 하는 내용(정보)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以心伝心」이라는 말은 일본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에도 있다. Hasegawa(1994)의 분석대로라면 한국어에서도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4)의 「어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와 같이 일일이 말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3)의 「어제는 정

2) 長谷川(1994)에서는 「이심전심(以心伝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일본에는 「이심전심(以心伝心)」이라는 말이 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미국은 일본과는 반대이다. 언어, 문화, 민족이 다른 이민국가이기 때문에, 상대가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상대는 이해해주지 않는다. 말하자면 「다언설득(多言説得)」의 세계라 할 수 있다」(長谷川(1994, p.32)(필자역).

말」만으로도 상대방이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그것으로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인 화자의 입장에서 보면 (3)은 정보의 내용(양)이 불완전(부족)하게 느껴지며 자연스럽게 못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즉, 「以心伝心」이라는 말이 존재하는 문화와 그렇지 않은 문화라는 구별만으로는 일본어와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1)~(4)의 관계를 설명하기가 어렵다.³⁾

이상, 「どうも」의 의미를 일본문화와 관련시켜서 논한 대표적인 두 가지 선행연구를 검토해보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A. 일본어의 「どうも」의 경우 그 이하의 부분이 생략되어도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인들 간에는 콘텍스트(context)⁴⁾를 통해서 그 생략된 부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문화(콘텍스트에 의존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B. 일본어와 한국어 간에 (1)~(4)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일본인과 한국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콘텍스트에 의존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며 일본이 한국보다도 콘텍스트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은 문화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어와 한국어 간에 (1)~(4)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한국에 비해서 일본이 상대적으로 언어코드보다는 콘텍스트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높은 사회(문화)에 속하기 때문이며, 일본인과 한국인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경우에 있어서도 그러한 문화적 차이가 두 나라의 커뮤니케이션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그것이 각각의 언어표현에 반영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경우 일본어가 한국어보다 콘텍스트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예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본 논문에서는 일본어의 인사표현, 「どうも」「どうぞ」의 예에 한정해서 논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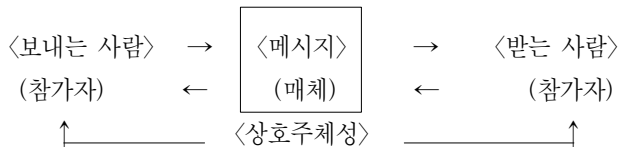
3) 「以心伝心」이라는 말은 「마음으로 마음을 전한다」 즉, 쉽게 말하면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마음만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뜻이지만, 그것도 서로의 표정이나 몸짓, 놓여진 상황 등의 콘텍스트의 도움이 없이는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하다. 콘텍스트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以心伝心」과 같은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언어일수록 콘텍스트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일본어와 한국어에 모두 「以心伝心」이라는 말이 존재한다고 해도 문화의 차이 때문에 전달하는 정보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콘텍스트 의존성이 얼마만큼 높은가에 따라라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4) ‘context’는 문장(text)의 「문맥」 또는 담화(discourse)에서의 「장면」을 각각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문장과 담화에 관계없이 두 의미를 포함하는 의미로서 「콘텍스트」로 통일해서 사용하기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콘텍스트란 담화에서 문장을 뺀 개념으로(橋内(1999), p.27),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시간적인 환경(그 장소에서의 분위기나 상황, 언어 외의 의미, 상대와의 유대관계 등) 모두를 가리킨다(鍋倉(1997)p.28).

2. 담화의 4가지 요소와 그 관계

Schiffrin(1994)에 의하면, 담화(discourse)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이루어지며, 인간은 정보를 전달하고 서로 동일한 의미와 상호행위의 해석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발화를 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다루던 참가자(participants), 메시지(message), 매체(medium)라는 세 가지 요소뿐만 아니라 「상호주체성(inter-subjectivity)」이라는 요소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1〉과 같다.⁵⁾

〈그림1〉 커뮤니케이션의 요소와 과정



첫째로, 메시지는 ①새로 입수한 정보(보내는 사람만 알고 있는 정보)나 이미 알고 있는 정보(쌍방의 공유물)이나⁶⁾, ②메시지의 출처(source)가 (언어화되기 이전의)생각이나 발화자의 의도(신념 또는 희망)나, ③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 있어서 주로 코드(언어체계)에 의존하느냐 주로 콘텍스트에 의존하느냐와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 중 ③의 코드에 의존하는 경우의 전형은 식사(式辭)나 공식문서이며, 콘텍스트에 의존하는 경우의 전형은 일상의 회화나 논의(論議)에서 나타난다.

둘째로, 언어커뮤니케이션의 매체에 대해서는 ①회화체 언어, ②문장체 언어, ③수화(手話)라는 세 전달방법(channel 또는 mode)이 있는데, ①②만을 놓고 볼 때 모두 언어행동(음성 언어/문자언어) 그 자체와 그와 동반되는 비언어적 행동(음질, 몸짓, 손짓, 대인거리 등/글자체, 글자의 배치, 필적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상호주체성(공동주관성)은 참가자끼리의 지식과 경험에 관계되는 개념이며, 커뮤니케이션의 참가자인 전달자와 피전달자는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서 유사한 해석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즉, 처음부터 상이한 참가자가 기본적인 지식(현실세계에 대한 지식과 사용언어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있을 때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의해서 새로이 창조되는 것도 참가자끼리의 지식의 공유화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상호주체성은 커뮤니케이션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5) Schiffrin(1994).p.386, 橋内(1999).p.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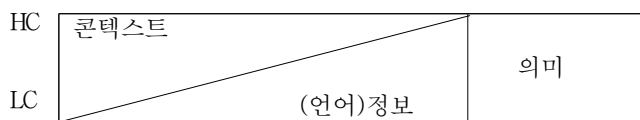
6) 새로 입수한 정보인 경우 정보를 보내는 사람의 체험담 등이 예가 될 수 있으며,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인 경우 날씨에 관한 이야기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3. 코드 의존의 문화와 콘텍스트 의존의 문화

한편,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요소들 간의 관계는 비단 한 언어문화권 속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문화간 커뮤니케이션(intercultural communication)의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커뮤니케이션은 콘텍스트에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자신이 놓인 콘텍스트로부터 화자의 발화의도를 의식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상황에 맞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전개하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많지 않고 특히 당사자들 간의 문화적 배경이 다른 경우는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이문화간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발화의 해석을 결정해야 할 콘텍스트 자체의 해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의 불일치는 종종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콘텍스트 의존도의 차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Hall(1966)은 각 문화에 속해있는 개인이 메시지를 기호화하고 해독하는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콘텍스트에 의존하는 정도에 따라, 문화를 「콘텍스트 의존도가 높은 문화(High Context Culture : HC 문화)」와 「콘텍스트 의존도가 낮은 문화(Low Context Culture : LC 문화)」로 나누었다⁷⁾. 또한 Hall(1976)에서는 이 HC 문화와 LC 문화의 관계를 문화콘텍스트와 정보의 상호작용(즉, 콘텍스트와 언어정보 중 어느 쪽에 더 의존하는 문화나)이라는 면에서 다음의 <그림2>와 같이 나타내고 있다.

<그림2> 문화콘텍스트와 정보의 상호작용



위의 <그림2>에서 알 수 있듯이 HC 문화란 메시지를 해석할 때에 콘텍스트에 의존하는 성향(정도)이 높은 문화를 말한다. HC 문화에서는 화자와 청자 간의 공유되어진 정보(지식이나 경험)가 많기 때문에 명확히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고 때로는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커뮤니케이션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즉, 상대방의 의도를 「헤아릴」 수 있는 문화라 할 수 있다.

7) Hall(1966)에서는 일본인은 포함되어있지만 한국인이 포함되어있지 않다. 한편, Hall, E.T and Hall, M.R(1990)에서는 한국인도 포함되어있으며 Hall(1966)에서도 그랬듯이 이 논문에서도 콘텍스트 의존도가 가장 높은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일본인으로 나타나있다. 다음으로 중국인, 한국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미국 원주민, 아랍인, 그리스인, 라틴계, 이탈리아인, 영국인, 프랑스인, 미국인, 독일인, 스칸디나비아인, 독일계 스위스인의 순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LC 문화는 개인주의가 발달해서 화자와 청자 간의 공유되어진 정보가 적은 문화를 말한다. LC 문화에서는 서로 공유하는 정보가 적기 때문에, 서로 명확히 말로 표현해서(또는 문서로 써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며, 서로 상대방의 의도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콘텍스트에 의존하지 않는 언어코드를 구사할 필요가 있다. 즉,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콘텍스트를 잘 판단해서 그에 적합한 말씨나 표현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HC 문화의 전형적인 예로 알려진 일본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하나 입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통하지 않는 LC 문화의 커뮤니케이션은 이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반대로 LC 문화에 속하는 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헤아림(察し)」 「이심전심(以心伝心)」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은 이해하기 힘들고 정보량이 부족한 것으로 느끼게 된다.⁸⁾

이처럼 언어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할 경우에는 언어사용상의 관습차이로 인해서 상대방의 의도와 다른 의미해석을 하게 되어 여러 가지 오해나 곤란, 즉, 이문화간의 미스커뮤니케이션(cross-cultural miscommunication)이 생기게 된다.

4. 콘텍스트 의존도의 차이에서 본 일본어와 한국어

일본어에서나 한국어에서나 어떤 특정한 콘텍스트에 한정적 유형적으로 나타나는 인사표현(「こんにちは」「안녕하세요」 등), 감사·사죄·축하 등의 표현(「すみません」「죄송합니다」 등), 응답표현(「かしこまりました」「알겠습니다」 등), 전치(前置)표현(「お電話で失礼ですが」「(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려야 하는데)전화로 죄송합니다만」 등), 대화나 문장 속에 나타나 그 구조나 전개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하는 정형(定型)표현(「以上、甚だ簡単ですが、歓迎のごあいさつとします」「이상, 간단합니다만 환영인사로 대신 합니다」 등) 등 상투적인 어구

8) 鍋倉(1997)은 Hall(1976)의 문화콘텍스트와 정보의 상호작용을 기초로 HC에 속하는 일본문화와 LC에 속하는 미국문화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놓았다(p.28. 한글 역은 필자. 표 형식은 생략하고 내용만 소개한다).

〈HC 문화(일본)〉

민족적으로 동질이고 역사, 습관, 언어 등으로 보아 공유하고 있는 콘텍스트의 정도가 높기 때문에 집단주의와 획일성이 발달되어있다.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은 언어에 있어서는 애매하고 추상적이면 비언어에 있어서는 미묘한 부분이 많다. 「침묵은 금이다」의 발상.

〈LC 문화(미국)〉

다른 인종·민족에 의해서 구성되어있으며, 공유하고 있는 콘텍스트의 정도가 낮아서 개인주의와 다양성이 발달되어있다.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은 언어에 있어서는 논리적이고 구체적이며 비언어에 있어서는 대략적인 경우가 많다. 「웅변은 금이다」의 발상.

(routine formulae)가 많이 나타난다. 그런데 같은 콘텍스트에서 쓰이는 상투적인 어구라고 하더라도 언어에 따라서는 그것을 나타내는 방법과 형식이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일본어와 한국어의 경우에는 콘텍스트 의존도의 차이에 의해서 표현방법이 다르게 나타나는 예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그 중에서도 일본어의 주요 인사표현과 「ども」 「どうぞ」를 대상으로 고찰한다.

4.1. 주요 인사표현

여기에서는 화자가 청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 중에서 일부만 언어형식으로 나타내고 나머지는 생략하는-즉, 콘텍스트에 의존하게 하는-형태의 일본어의 주요 인사표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어의 인사표현에는 한국어의 인사표현에서 볼 수 없는 콘텍스트 의존도가 높은 예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들 예를 몇 가지 상황별로 나누어서 확인해보기로 한다.

우선, 만날 때의 인사의 경우, 일본어에서는 (5)(7)에서 보듯이 주제의 형식(～は)만 나타내고 나머지 안부 등을 나타내는 부분(「ご機嫌いかがですか/いかがお過ごしですか」 등)에 대해서는 콘텍스트에 의해서 파악한다. 이에 대해서 한국어의 경우는 (6)(8)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콘텍스트에 의존하는 방법을 쓰지 않고 「안녕하세요」와 같이 안부를 묻는 부분을 명확한 언어코드를 가지고 나타낸다.

- (5)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ご機嫌いかがですか/いかがお過ごしですか。
 (6)*오늘은.→안녕하세요.(낮 인사)
 (7)こんばんは。→こんばんはご機嫌いかがですか/いかがお過ごしですか。
 (8)*오늘 밤은.→안녕하세요.(밤 인사)

다음으로, 헤어질 때의 인사의 경우, 일본어에서는 (9)(11)의 「さようなら」 「それじゃ」와 같이 접속조사가 쓰인 형태, (11)의 「じゃ」와 같이 접속사부분만 쓰인 형태, (13)(15)의 「お先に」 「気を付けて」와 같이 부사부분만 쓰인 형태, (17)의 「お疲れ様」와 같이 명사부분만 쓰이는 형태 등이 있다. 이 형식 이외의 부분은 콘텍스트에 의해서 파악한다. 한편 한국어에서는 (10)(12)(14)(16)(18)의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와 같이 콘텍스트에 의존하지 않고 그 내용 전체를 언어코드에 의해서 표현한다.

- (9)さようなら。→さようならお元気に過ごしてください/またお会いしましょう。
 (10)*그렇다면/*?그럼→그럼 안녕. 그럼 안녕히 계세요/그럼 또 봐요.
 (11)(それ)じゃ→それじゃお元気に過ごしてください/またお会いしましょう/失礼します。
 (12)*그러면/*?그럼→그럼 실례 하겠습니다(가보겠습니다).
 (13)お先に→お先に失礼します。
 (14)*먼저→먼저 실례하겠습니다.

- (15) 気をつけて→気をつけてお帰りください.
 (16) *조심해서→조심해서 (돌아)가세요.
 (17) お疲れさま→お疲れさまでした.
 (18) *수고→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약속할 때나 밖에서 돌아올 때에 쓰이는 인사의 경우, 일본어에서는 (19)(21)과 같이 「また」「今度」「また今度」「只今」와 같이 부사부분만 나타내고 나머지는 콘텍스트를 통해서 파악한다. 반면에, 한국어의 경우는 (20)(22)의 「또 다음번에 할게요/한잔해요」와 같이 전부를 언어코드로 나타내는 경우와 「다녀왔습니다」와 같이 뒤의 부분만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⁹⁾.

- (19) また今度→また今度にします/一杯やりましょう…
 (20) *또 다음번에→(?또)다음번에 할게요/한잔해요.
 (21) 只今→只今帰りました.
 (22) *지금→(?지금)다녀왔습니다.

네 번째로, 처음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인사를 할 때 또는 오랜만에 만났을 때 쓰이는 인사의 경우, 일본어에서는 각각 (23)(24)에서 든 것처럼 「どうぞよろしく」「ひさしぶり」와 같이 형용사의 부사형이나 형용사의 어간부분만 나타내고 나머지 부분은 콘텍스트로 파악한다. 한편, 한국어에서는 (24)(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디)잘 부탁드립니다」「오랜만에 뵙겠습니다」와 같이 모든 정보를 언어코드를 가지고 표현한다.

- (23) どうぞよろしく→(どうぞ)よろしく願います.
 (24) *(부디) 잘→(부디)잘 부탁드립니다.
 (25) ひさしぶり→ひさしぶりにお目にかかります.
 (26) *오랜만→오랜만에 뵙습니다.(오랜만입니다)

이 외에도 일본어에는 집에서 밖에 나갔다 돌아오는 사람을 맞을 때 쓰는 「お帰り」, 길에서 만났을 때 쓰는 「これからどちらへ」, 처음 만났을 때의 인사로 쓰는 「はじめまして(「はじめて」의 정중형)」 등 콘텍스트에 의존해서 쓰이는 정형화된 다양한 인사말들이 있다. 이들에 대해서 한국어에서는 각각 「왔어?/다녀오셨어요?」「지금 어디 가세요?」「처음 뵙겠습니다」 등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모두 언어코드를 가지고 표현한다¹⁰⁾.

9) (21)에 대한 (22)의 표현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쓰는 경우에 한정된다. 즉, 일본어의 「只今」는 상하에 관계없이 넓게 쓰이지만 한국어의 「다녀왔습니다」는 자식이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윗사람에게 또는 부하가 상사에게 쓰이는 정도인 것 같다. 그 반대의 경우는 가족들(부인과 애들)을 향해서 「아빠 왔다」와 같이 쓰는 경우 외에는 특별히 정해진 인사말이 없으며, 아무 말 없이 들어오면 오히려 아랫사람이 「다녀오셨어요?」라고 말하면서 맞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부간에도 한 쪽이 돌아올 때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오늘은 많이 늦으셨네요?」「왔어?」등 맞이하는 쪽이 먼저 말을 거는 경우가 많다.

- (27) お帰り→お帰りなさい。
 (28)*돌아오→왔어?/다녀오셨어요?
 (29)(これから)どちらへ?→これからどちらへお出かけですか。
 (30)*지금 어디로→(?지금)어디 가세요?
 (31)はじめて→はじめてお目にかかります。
 (32)*처음(으로)→처음(?으로)뵙겠습니다.

4.2. 「どうも」

위에서 본 인사표현과 더불어 콘텍스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일본어표현으로서 「どうも」가 있다. 鬼山(1999)는 이 「どうも」에 대해서 다의어적인 부사로 보고 단독으로 쓰일 때는 인사표현으로서 「どうもありがとう」「どうもすみません」「どうも恐縮です」 등의 뒷부분을 생략하는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다(p.66).

한편, 李(1984)는 일본어의 사용법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일본인들은 인간에게서 머리만 남기고 나머지 손과 발을 잘라버리듯이 모두 생략해버리는, 세계에서 희귀한 축소어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李(1984)는 이것을 「「どうも」의 문화」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どうも」는 단순한 부사인데 일본인들은 「どうもありがとう」「どうも気の毒です」「どうもめでたい」「どうもけからん」 등의 본체의 의미를 잘라 없애고 「どうも」의 부분만으로 쓰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는 웬지 이상하게 들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인들의 축소하는 문화-즉, 「축소지향의 문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pp.74-75).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단독용법의 「どうも」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인사표현을 들어서 구체적인 서술 부분이 생략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을 뿐이고 그것이 생략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일본문화의 관점에서 논한 李(1984) 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 했듯이 이러한 유형의 생략이 일본어에서만 관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일본의 축소지향이라는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선행연구와 다른 입장을 취한다. 즉, 단독용법의 「どうも」가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どうも」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의성 때문이 아니라 「どうも」가 사용되는 다양한 콘텍스트 때문이며, 뒤에 오는 구체적인 서술부분을 나타내지 않고도 「どうも」만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것은 일본인의 경우 정보의 많은 부분을 콘텍스트에 의존하는 문화(HC 문화)가 발달되어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¹¹⁾. 여기서는 「どうも」가 콘

10) (27)에 대해서 (28)과 같은 한국어를 대응시키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어에는 일본어와 같은 인사말에 해당하는 정형화된 형식이 없거나 그렇게 인사하는 습관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대응관계를 나타내기가 쉽지 않다. 즉, (27)의 경우 한국어에서는 「お帰り(なさい)」의 직역인 「돌아오너라」「돌아오세요」와 같은 표현은 쓰고 있지 않다. 아랫사람에 대해서는 「다녀왔습니다」에 대한 대답으로 「그래」「왔어?」 등 여러 가지 표현이 쓰이고, 윗사람에 대해서도 「다녀오셨어요?」, 부부간에도 「오늘 일찍 들어왔네(들어오셨네요)」「왜 이렇게 늦었어?(늦으셨어요?)」 등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여서 마땅히 정형화된 표현이 없는 것 같다.

텍스트에 의존해서 쓰이는 예를 「사교상의 용법」과 「부정적인 판단용법」으로 크게 나누고 각각에 대해서 상황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4.2.1. 사교상의 용법으로서의 「どうも」

우선, 「どうも」가 사교상의 용법으로 쓰이는 것으로서는 다음의 ①~⑦에서 든 것처럼 감사, 축하, 위로, 애도, 사과, 작별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우선, 일본어의 경우는 (33)(35)(37)(39)(41)(43)(45)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どうも」는 콘텍스트에 따라서 「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どうも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どうもお疲れ様です」 「どうもお気の毒なことと存じます/お悔やみ申し上げます」 「どうもすみませんでした/申し訳ありませんでした」 「どうも失礼(いた)します」 「どうもお世話になりました」 등의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낸다. 이처럼 일본인들은 「どうも」 이하의 다양한 표현에 대해서 언어코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각각의 콘텍스트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이것은 일본의 HC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한국어의 경우는 (34)(36)(38)(40)(42)(44)(46)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어의 「どうも」의 경우처럼 「정말(대단히)」만을 사용해서 나머지 부분을 콘텍스트에 의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각각의 콘텍스트를 언어코드 형식으로 표현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애석하게 됐습니다/삼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정말 신세 많이 졌습니다」와 같이 쓰지 않으면 안 된다.

①감사의 표현

(33)わざわざどうも。→わざわざ(来てくださって)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34)*정말→일부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②축하의 표현

(35)本日はどうも。→本日はどうも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6)*오늘은 정말→(?오늘은)정말 축하드립니다.

③위로의 표현

(37)今日はどうも。→今日はどうもお疲れ様です。

(38)*정말(대단히)→오늘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④애도의 표현

(39)この度はどうも。→この度はどうもお気の毒なことと存じます/お悔やみ申し上げます。

(40)*이번에는 정말→(?이번에는)정말 애석하게 됐습니다.

⑤사과의 표현

(41)昨日はどうも。→昨日はどうもすみませんでした。

11) 대우표현의 관점에서 보면, 「もうも」만으로는 너무 간략하며 상위자 등 경의를 표해야 하는 상대에 대해서는 콘텍스트보다는 언어코드를 사용해서 완전한 문장으로 인사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鬼山(1976).p.100)

- (42)*어제는 정말→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⑥방문했다 돌아갈 때 쓰는 표현
 (43)じゃ、どうも。→じゃ、どうも失礼します.
 (44)*그럼 이만→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⑦신세를 많이 졌을 때 쓰는 표현
 (45)その節はどうも。→その節はどうもお世話になりました.
 (46)*그 때는 정말→그 때는 정말 신세 많이 졌습니다.

4.2.2. 부정적인 판단용법으로서의 「どうも」

다음으로 부정적인 판단 용법은 질문에 대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47)와 같이 「지식」에 대한 것, (49)와 같이 「가능」에 대한 것 등이 있고, 후자의 경우는 (51)과 같이 「일의 진척」에 대한 것, (53)과 같이 「취향이나 일반적 상식」에 대한 것 등이 있다. 이들도 「どうも」 이하부분인 「よくわかりません」「うまくできません」「うまくいきません」「好きではないんです/よくない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등에 대해서 굳이 언어코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일본인들은 콘텍스트를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며 전혀 어색하지 않은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 판단용법의 특징은 격의 없는 사이에서는 「私はどうもね」「私にはどうもね」「仕事の方がどうもね」「個人的にはどうもね」와 같이 「~ね」의 형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どうも」에 해당하는 「아무래도」「왠지」만으로 표현하고 「잘 모르겠습니다」「잘 못합니다」「잘 안 풀려서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불완전한 정보로 느끼게 되며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하다.

- (47)私はどうも。→私はどうもよくわかりません。
 (48)*저는 아무래도→저는 아무래도 잘 모르겠어요.
 (49)私にはどうも。→私にはどうもうまくできません。
 (50)*저는 왠지→저는 왠지/어쩐지 잘 못합니다.
 (51)仕事のほうはどうも。→仕事のほうはどうもうまくいかなくて.
 (52)*일이 왠지→일이 왠지 잘 안 풀려서요.
 (53)*(教室の外で生徒さんと)個人的にご一緒するのはどうも…。(Shall we ダンス?)
 → 個人的にご一緒するのはどうも好きではありません/よくないのではないでしょか.
 (54)*(교실밖에서 수강생과)개인적으로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4.3. 「どうぞ」

선행연구에서 보면 奥山(1999)은 「남에게 차를 권하거나 물건을 제공하거나 하는 경우에 말이 짧은 만큼 몸짓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몸짓에 의한 콘텍스트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고(p.66), 水谷他(1988)도 「「どうぞ」만으로 나머지 부분을 말하지 않는 것은 겸손한 태도를

나타내고 정중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どうぞ」만으로 끝나는 경우는 그 의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몸을 굽히거나 다른 몸짓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면서 언어보다도 몸짓 등의 콘텍스트가 더 특별한 기능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pp.68-69). 이처럼 「どうぞ」도 앞에서 본 「どうも」와 함께 콘텍스트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표현이다. 한편 「どうぞ」가 콘텍스트에 의존해서 사용되는 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여러 유형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거의 언급이 되어있지 않다. 본문에서는 편의상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예를 들기로 한다.

①단독형의 「どうぞ」

②부사구+ 「どうぞ」

우선 ①단독형의 「どうぞ」에 대해서는 (55)(57)(59)(61)(63)(65)(67)(69)(71)과 같이 권유를 나타내는 다양한 콘텍스트에서 사용된다. 이러한 표현이 가능한 것은 일본어에서는 「どうぞ」라는 텍스트(text)에는 나타나지 않는 「～(て)ください」의 의미까지도 비언어적인 콘텍스트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HC 문화가 형성되어있기 때문이다¹²⁾. 이에 반해서 한국어에서는 (56)(58)(60)(62)(64)(66)(68)(70)(72)와 같이 「どうぞ」에 해당하는 「어서/자」만을 사용하고 「～(て)ください」에 해당하는 「～세요」의 의미를 콘텍스트를 통해서 파악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있지 않다.

(55)どうぞ→どうぞあがってください/おあがりください。

(56)*어서→(어서) 올라오세요¹³⁾。

(57)どうぞ→どうぞ入ってください/お入りください。

12) 「どうぞ」가 항상 콘텍스트에 의존해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1)~(5)와 같이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콘텍스트를 통해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체적인 서술부분의 일부 또는 전체를 언어코드화해서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들 대부분은 「권유」라기 보다는 「부탁」이나 「당부」를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된다. 즉, 「どうか」「なにとぞ」와 유사한 의미로 쓰일 경우라 할 수 있다.

(1)*どうぞ→どうぞごゆっくり(遊んでいってください)。

(2)*どうぞ→どうぞ(お体こ/足下に)気をつけてください。

(3)*どうぞ→どうぞお元気で(お過ごしください)。

(4)*どうぞ→どうぞ頑張ってください。

(5)*どうぞ→どうぞ(私たちに)おまかせください。

13) 여기서는 일본어의 「どうぞ」에 대해서 한국어의 「어서」를 대응시키고 있지만 실제로 「어서」의 경우는 「どうぞ」에 비해서 손아래사람에게도 쓰일 뿐 아니라 재촉하는 느낌이 강해서 부드러운 권유를 나타낼 경우에는 쓰이지 않는다. 그냥 「～세요」라는 형태로 쓰는 경우가 많다. 「어서」에 이러한 특별한 어감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로 나타내기로 한다. 그리고 「어서」와 함께 「부탁」이나 「당부」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부디」를 쓰는데 이들을 썼을 때 어색한 경우에는 ?를 붙인다.

- (58)*어서→(어서) 들어오세요(들어가세요).
 (59)どうぞ→どうぞ召し上がってください/お召し上がりください。
 (60)*어서→(어서) 드세요.
 (61)どうぞ→どうぞ座ってください/お座りください。
 (62)*어서→(어서) 앉으세요.
 (63)どうぞ→どうぞ(気軽に)見ていってください。
 (64)*어서→(어서)(부담 갖지 마시고)보고 가세요.
 (65)どうぞ→どうぞご覧ください/ご覧になってください。
 (66)*어서→(어서)구경하세요.
 (67)どうぞ→どうぞ(ご自由に)お持ち帰りください。
 (68)*어서→(어서)(원하는 대로)가져가세요.
 (69)どうぞ→どうぞ(一度)試してみてください/お試ください。
 (70)*어서→(어서)한번 입어보세요/해 보세요.
 (71)どうぞ→どうぞこの車に乗ってください。
 (72)*어서→(어서)이 차에 타세요.

다음으로 ②부사구+「どうぞ」에 대해서는 권유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①단독형의 「どうぞ」와 공통되나 ②부사구+「どうぞ」의 경우는 술어와 연결되는 부사구가 「どうぞ」 앞에 놓여 그 정보의 의미를 어느 정도 구체화시키고 나머지 부분의 의미를 콘텍스트를 통해서 파악한다는 점에서 ①단독형의 「どうぞ」와 구별된다. 이에 해당하는 예는 일본어에는 다수 존재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이 경우에도 「어서/부디」 이하의 부분을 콘텍스트를 통해서 파악하는 커뮤니케이션 문화가 형성되어있지 않다. 그만큼 한국어의 「어서/부디」는 일본어의 「どうぞ」와 비교해서 콘텍스트 의존도가 약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관계를 몇 가지 예를 통해서 나타내면 다음의 (73)~(86)과 같다.

- (73)お先にどうぞ→どうぞお先に歌ってください。
 (74)*먼저 어서→(어서)먼저 부르세요.
 (75)私の車をどうぞ→どうぞ私の車を使ってください。
 (76)*제 차를 어서→(어서)제 차(를) 쓰세요.
 (77)もう少しどうぞ→どうぞもう少し召し上がってください。
 (78)*좀 더 어서→(어서)좀 더 드세요.
 (79)お土産にどうぞ→どうぞお土産にご利用ください。
 (80)*선물로 어서/부디→(부디)선물로 이용해보세요.
 (81)今度ご家族でどうぞ→どうぞ今度ご家族でいらしてください。
 (82)*다음에는 가족끼리 어서/부디→(부디)다음에는 가족끼리 오세요.
 (83)順番にどうぞ→どうぞ順番にお入りください。
 (84)*순번대로 어서/부디→(부디)순번대로 들어와 주세요.
 (85)また次の機会にどうぞ→どうぞまた次の機会に挑戦してみてください。
 (86)*또 다음 기회에 어서/부디→(부디)또 다음 기회에 도전해보세요.

이 이외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私の車でどうぞ」「私の携帯でどうぞ」「あとでどう

ぞ」「またどうぞ」「こちらどうぞ」「お気楽にどうぞ」「ご自由にどうぞ」「お休みの日にでもどうぞ」「お好きなだけどうぞ」「こちらの方へどうぞ」「こちら(の控室/の喫煙室/お部屋)でどうぞ」「お手空きの方からどうぞ」「1番のお客様からどうぞ」「お酒のおつまみにどうぞ」「借金(車)のことならこちら(の電話番号)へどうぞ」「お子さんにどうぞ」「奥さんの分もどうぞ」「次の方どうぞ」와 같은 많은 예들이 있다. 14)

5. 맺음말

이상, 일본과 한국은 모두 HC 문화에 속한다고 하지만 일본이 한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언어코드보다는 콘텍스트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높은 사회(문화)에 속한다는 것과 그러한 사회(문화)적 차이가 일본인과 한국인이 각각 커뮤니케이션을 행하는 경우에도 언어표현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일본어의 주요 인사표현, 「ども」「どうぞ」와 그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의 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일본이 한국보다 콘텍스트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예들이 많이 존재한다. 선물을 주면서 쓰는 「つまらないものですが/つまらないものですが、どうぞお受け取りください」(*변변치 않는 물건이지만/변변치 않는 물건이지만 받아주십시오), 식사를 권할 때 쓰는 「何もありませんが/何もありませんが、どうぞ召し上がってください」(*아무것도 차린 게 없지만/아무것도 차린 게 없지만 많이 드세요), 설명의 「そろそろ出かけないと/そろそろ出かけないといいいな」(*슬슬 나가지 않으면/슬슬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등 다양한 표현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더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4) 비언어적 콘텍스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방법으로서 「よかつたら/よろしかつたらどうぞ」「はしかつたらどうぞ」「お腹がいたくなったらこの薬をどうぞ」「危ないですから白線の内側へどうぞ」「この仕事時間がかかりそうですからお先にどうぞ」 등 조건절이나 이유절이 앞에 오는 경우도 많다.

【参考文献】

- 安部洋子他(2004) 『文化・社会・地域』東京法令出版
- 李御寧(1984) 『「縮み」志向の日本人』講談社文庫
- 池上嘉彦(2007) 『日本語と日本語論』ちくま学芸文庫
- 石井敏 他(1999) 『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有斐閣選書
- 鬼山益朗(1999) 『状況分類敬語用法辞典』東京党出版
- 川上郁夫他(2004) 『異文化理解と情報』東京法令出版
- 小池生夫編(2003) 「VI. 言語コミュニケーション」 『応用言語学事典』研究社
- 斎藤明美(2005) 『ことばと文化の日韓比較』世界思想社
- 鈴木良次編(2006) 「4-4. 文化と言語」 『言語科学の百科事典』丸善株式会社
- 鍋倉建悦(1997) 『異文化間コミュニケーション』丸善ライブラリー
- 日本語教育学会編(2005) 「4. ことばの運用」 『新版日本語教育事典』大修館書店
- 野元菊雄(1988) 『日本人の言語行動』アルク
- 橋内武(1999) 『ディスコース』くろしお出版
- 長谷川勝行(1994) 『日本人の秘密』HIRA-TAI BOOKS
- 堀口純子(1997) 『日本語教育と会話分析』くろしお出版
- 牧野誠一(1996) 『ウチとソトの言語文化学』アルク
- 水谷修他(1988) 『外国人の疑問に答える日本語ノート1 ことばと生活』The Japan Times
- メイナード、泉子・K(1997) 『談話分析の可能性：理論・方法・日本語の表現性』くろしお出版
- メイナード、泉子・K(2005) 『談話表現ハンドブック』くろしお出版
- 森本鉄郎(1985) 『日本語 表と裏』新潮社
- Hall, E. T. 1959. *The silent language*. Doubleday. (国弘正雄, 長井善見, 斎藤三津子訳 『沈黙のことば』 南雲堂, 1970)
- Hall, E. T. 1966. *The hidden dimension*. Doubleday. (日高敏隆, 佐藤信行訳 『かくれた次元』 みすず書房, 1970)
- Hall, E. T. 1976. *Beyond Culture*, Garden City, NY:Anchor Press.(岩田慶治・谷泰訳 『文化を越えて』 TBSプリタニカ, 1979)
- Hall, E. T. and Hall, M.R. 1990. *Understanding Cultural Differences :German, French and Americans*. Intercultural Press
- O. Hoffe. 1986. *Lexicon der Ethik*. 熊田健二 (1992) 「文化の基礎概念」 『文化の基礎理論と諸相の研究』 岩手大学人文社会科学部総合研究委員会
- Schiffrin, Deborah. 1994. *Approaches to Discourse*. Oxford:Blackwell.
- Würtz, E. 2005. A cross-cultural analysis of websites from high-context cultures and low-context culture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1(1), article 13.

要 旨

本稿は、日本人と韓国人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違いについて、コンテキストに依存するか言語コードに依存するかという面から考察したものである。

ホールは文化を低コンテキスト文化(Low Context Culture)と高コンテキスト文化(High Context Culture)の二つの文化類型に規定し、後者の上位の例として日本と韓国を順に挙げている。つまり、我々が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よって情報のやり取りをする時に、そのすべてが言語コードによってなされるのではなく、ある部分はコンテキストに依存する形でなされわけであるが、日本人と韓国人だけを見た場合、日本人の方が韓国人より相対的に言語コードよりもそれをとりまくコンテキストに頼る度合いが大きいということである。その代表的な例として、本稿では、挨拶表現と「どうも」「どうぞ」の例を挙げ、韓国語との比較を行った。そして、日本人の方が韓国人よりも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おいてコンテキストに依存する傾向が強いことを明らかにした。

キーワード；日本文化、高コンテキスト文化、低コンテキスト文化、相互主体性、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挨拶表現、どうも、どうぞ

투 고 : 2008. 8. 31
1차 심사 : 2008. 9. 12
2차 심사 : 2008. 9. 27